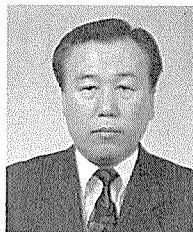


高品質의 商品과 서비스



李元正

(주)코리아네트 사장

“경제를 살리자”라는 구호가 지난번 대선때는 귀에 못이 박힐듯이 들렸으나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는 결과는 과거 청산과 정치개혁이라는 선결과제에 밀려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. 금융거래실명제라는 엄청난 변화도 있었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자금지원도 있었으나 실제 경제활동은 더 많은 불확실성과 모험속에 건디어 나온 과정이었다. 정보산업체 특히, 중소기업으로서는 생존하기 위한 활로를 찾기에 급급한 한해였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단기전략에 의한 영업활동이 주가 되었다. 내년에는 정부에서도 정보산업육성과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전략적 정책수립과 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기업 스스로가 해당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. 정보처리분야에는 다운사이징과 네트워킹 추세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. 경쟁 또한 심화될 것이기에 전문기술의 확보, 상품질의 상품 그리고 고객 만족의 서비스만이 중소정보산업체의 발전 수단이 될 것이다.